



생명평화 운동과 대승불교의 수행 / 도법

인드라마 존재(본래부처)와 동체대비행(보현행원)

[43 호] 2010 년 06 월 25 일 (금)

도법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

1. 생명평화 운동

1) 들어가는 말

기본적인 문제의식 1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은 세상, 행복한 삶을 꿈꾸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인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근본적인 원인의 한 가지가 바로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에 어긋나는 실체론적 세계관과 이분법적 방법론이다.

또는 보편적 진리 즉 존재의 실상에 근거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식대로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싸워서 내가 이기고 내가 지배하면 평화로워진다, 또는 상대편을 제거하고 모두 내 편으로 만들면 저절로 평화로워진다고 여기는 전도몽상에 빠져 살아왔다.



도법스님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실제는 어떨까? 예를 들어 보자. 60억 인구가 전부 기독교인이 되면 평화로워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간의 극단적인 불신과 갈등과 대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불교도 마찬가지이다.

하루빨리 서둘러야 할 것은 싸워서 이기고 모두 한편이 되고 내가 지배한다고 해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다. 그리고 어떤 명분으로, 또는 그 누구이든 평화를 짓밟고 위협하고 파괴하는 부당함에 대해 진리의 정신인 진실과 사랑의 실천, 즉 비폭력 불복종 행동으로 비판하고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문제의식 2

21 세기 우리 현실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발전했다. 일찍이 오늘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편리하게 살아본 역사는 거의 없다. 그런데 결과로서의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첫째, 자연 생태적 재앙이 인류 문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보면 문명사 이래 최고의 위기 상황이다. '더 많이, 더 편리하게'라는 현대인들의 맹목적인 욕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만큼 인류의 문명 자체가 파국으로 갈 위험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극단적인 양극화가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당연히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했으면 양극화는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더 극대화되고 있다. 양극화가 더 극대화된다면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 알 수는 없지만 대단히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확대 증폭되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 번째는 인간소외가 삶을 황폐화하고 있다. 먹는 것도 풍족해지고 생활도 편리해졌지만 삶이 편안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 자유롭지도, 여유롭지도, 평화롭지도 않다. 사람 관계도 인생의 따뜻한 이웃이나 동반자가 아니라 차가운 경쟁자이고 적대자뿐이다. 삶이 공허하고 두렵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고 불안, 초조하다.

짚어 본 현대사회의 현주소를 정리하면 생명 위기, 평화 위기, 삶의 위기로 요약된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가지 물음을 갖게 된다.

하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이다. 자연생태, 사회양극화, 인간소외 문제가 왜, 누구 때문에 발생했을까? 문제의 주범은 진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인간이고 자기 자신이다. 문제를 정직하게 사실적으로 확인해 보면 결국은 지금 여기의 내가 방향을 잃고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연 생태, 사회양극화, 인간소외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당연히 문제를 풀어 가려면 하루빨리 기독교는 불교, 불교는 기독교,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노동자는 자본가, 자본가는 노동자, 부시는 빈 라덴, 빈 라덴은 부시 때문이라는 식의 구태를 버려야 한다. 나아가 문제를 야기해 온 주범인 우리의 보편적 진리에 어긋나는 실체론적 세계관과 가치 의식과 삶의 방식을 고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옳다.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 있는가? 일찍이 성자와 현자들에 의해 제시된 길 또는 현대 과학이 내놓은 길이다. 바로 진실과 사랑의 법칙인 진리의 길이다. 가까운 역사에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진실과 사랑의 길, 즉 진리의 정신에 따라 행동한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비협조, 불복종 저항 운동이다. 우주의 보편적 진리인 진실과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그 힘으로 못 생명의 영원인 생명평화의 삶과 세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간디의 삶과 활동에 우리가 찾는 해답이 있다는 판단이다. 기존의 모든 갈등과 대립, 고통과 불행을 낳는 모든 벽을 넘어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길은 보편적 진리인 진실과 사랑의 법칙이라는 믿음이다.

2) 인류의 희망, 생명평화

(1) 왜 생명인가

일찍이 그 누구도 생명평화를 꿈꾸고 모색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데 진부하게 또 생명평화인가? 그렇다. 진부하다. 그럼에도 생명평화를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핵심적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보편적 진리에 어긋나는 그릇된 세계관인 실체론적 사고이다. 다른 하나는 이분법적인 방법론이다. 그동안 우리는, 내세운 명분은 인류의 공동선인 생명평화였지만 구체적인 역사 현실에선 나와 내 편이 아닌 너와 상대방의 생명평화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패거리 싸움을 반복해 왔다. 그 결과 끊임없는 살상과 파괴의 악순환을 반복해 왔고 나아가 생명 위기, 평화 위기, 삶의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패거리 논리를 넘어서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의 정신으로 생명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보편적 진리인 인드라마 세계관과 이분법을 넘어서는 중도적

실천론으로 생명평화의 화두를 붙잡아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진부하지만 다시 생명평화를 들고 나왔다. 이에 핵심적인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겠다.

-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등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귀중하고 절실한 가치가 지금 여기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 국가 . 종교 . 이념 . 명리 등 모든 것을 넘어서는 최고의 가치가 지금 여기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절실한 자기 문제이며 유일무이한 가치이므로 기존의 너와 나 . 남자와 여자 . 국가와 국가 . 종교와 종교 . 이념과 이념 . 이익과 손해의 벽을 넘어 함께 가꾸어가야 할 중요한 보편적 가치가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 파괴적인 현대 문명의 모순과 위험을 극복하고 생명 살림, 평화 실현의 대안적 삶과 대안적 문명을 열어나가는 길이 이 길 뿐이기 때문이다.

(2) 왜 평화인가

내 생명이 살고 싶은 삶, 내 생명이 누리고 싶은 삶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평화이다. 내 생명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고, 그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생명들의 원초적 바람이다.

만일 지금 여기 내 생명이 평화롭게 살 수 없다면 국가 . 종교 . 정치 따위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자유 . 정의 . 평화도 논할 필요가 없다. 국민소득 2만 달러가 아니라 10만 달러, 백 평이 아니라 천 평의 아파트가 주어진들 지금 여기 내 생명의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실상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생명평화의 가치는 그 무엇, 그 어떤 것보다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보편적이고 직접적이며 우선적이고 절실한 가치임이 틀림없다.

3) 생명평화 세계관

(1) 생명평화경 이야기

우리는 왜 자꾸 모순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가. 실상과 파괴의 악순환이 반복 확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성찰과 모색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 근저에 직면한 존재의 실상에 근거하지 아니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릇된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보편적 진리인 직면한 존재의 실상에 근거하지 아니한 이원론, 실체론의 세계관이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대인 대다수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상태에서 다음 단추를 계속 끼우듯이 어느 한 측면과 부분을 절대화시키거나 왜곡시킨 그릇된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당연히 문제의 근본 원인인 그릇된 세계관을 바로 잡아야 할 터이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진실, 너나없이 수궁하게 되는 구체적 사실 즉 존재의 실상에 근거한 보편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일이 문제를 해결하는 큰길임을 깨달았다. 동양과 서양, 국가와 국가, 종교와 종교, 과학과 종교, 무종교와 종교, 자본가와 노동자, 진보와 보수, 너와 나, 남자와 여자의 벽을 넘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의 세계관이 필요했다.

자연스럽게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동학, 원불교, 동양철학 등 존재의 실상에 입각한 공통적인 세계관, 현대 과학이 제시하는 공통적인 세계관, 역사 경험으로 터득한 공통적인 세계관의 정신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동체대비론'으로는 화염의 세계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관점으로는 기독교의 세계관, 생명 그물론으로는 과학의 세계관, 인내천의 관점으로는 동학의 세계관을 담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의 실상에 일치되는 보편적인 모든 세계관을 융해시켜서 만든 것이 생명평화경이다. 그중에 제일 많이 참고한 것이 《화엄경》이다. 아니 화엄의 눈 즉 인드라마의 사상과 정신의 사유로 만들어진 것이 생명평화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따라서 생명평화경은 누구의 창작이 아니다. 기독교, 불교, 동양철학, 현대과학, 동학, 역사적 경험 등 인류 문명사에서 존재의 실상에 근거하여 가꾸어진 기존의 보편성을 담고 있는 모든 세계관들을 나름대로 종합하여 만들었다. 특히 개인의 창작이 아니고 인류 모두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로 시작했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 내리는 한겨울 한밤중에 경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눈 내리는 한밤중”이라는 표현을 했다. 다음은 그렇게 만들어진 ‘생명평화경’ 가운데 세계관 부분이다.

지금부터 생명평화의 길인 우주의 진리를 설파하리니
그대들은 귀 기울여 경청하고, 깊이 사유 음미할지니라.
이것이 있음을 조건으로 저것이 있게 되고,
저것이 있음을 조건으로 이것이 있게 되며,
이것이 없음을 조건으로 저것이 없게 되고,
저것이 없음을 조건으로 이것이 없게 되나니라.
조건 따라 생성하고 소멸하는 우주의 진리인 이 사실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니라.

지면 관계로 전문을 옮기지 못했다. 전문이 필요하면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생명평화(인드라마) 무늬 이야기

생명평화경은 종종무늬 연기의 법칙 즉 인드라마 사유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 경의 사유 방식으로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내 생명,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유일한 존재인 내 생명의 진면목을 시각화한 것이 생명평화 무늬이다. 불교적으로 보면 인격적 개념으로는 유아독존, 비로자나불, 본래부처, 본래면목, 논리적 개념으로는 존재의 실상, 법의 실상, 생명의 실상, 세계의 실상, 인드라마 존재의 실상을 단순화시켜 형상화했다고 할 법하다.

위의 그림은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에 있는 생명평화 무늬이다. 무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 생명의 실상, 내 생명의 진면목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늬를 통해 관념적이지 않고 사실적으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실상을 짚어 보는 것이다.

이 세상에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일은 없다. 생명을 낳고 길러내는 일이야말로 신비요 기적이요 불가사의다.

아득히 저 멀리 태양이 없으면 과연 지금 여기 내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 태양과 관계를 맺지 않는 한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다. 태양에 의지해서만 지금 여기 내 생명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태양이 내 생명을 낳고 길러내고 있다. 태양은 내 생명의 의지처요 뿌리요, 모체요 어버이요, 부처요 하느님이다. 내 발밑에 있는 미생물 하나하나들이 내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있다. 돌멩이도 풀 한 포기, 밥 한 그릇도 곰팡이 한 마리도 모두가 내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거룩하고 신비한 존재이다. 마찬가지로 우주 삼라만상 낱알 존재들도 영원에서 영원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있다.

날날 존재들이 내 생명을 낳고 길러 주는 거룩한 존재인 만큼 당연히 아버지로, 부처님으로, 하느님으로, 이웃으로, 동반자로, 친구로 지극히 모시고 섬겨야 옳다. 섬김과 모심이 바로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사랑의 법칙 즉 법의 길을 실천하는 것이다. 생명의 법칙, 사랑의 법칙에 따라 생명의 모체들을 잘 모시고 섬기면 저절로 내 생명도, 그대의 생명도, 우리 모두의 생명도 빛나게 된다. 저절로 생명평화의 삶, 생명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눈부신가. 참으로 신비요, 기적이요, 불가사의라고밖에 달리 형언할 길이 없다.

생명평화 무늬는 내가 누구인지, 그대가 누구인지를 눈뜨게 한다. 내 생명의 하느님, 내 생명의 부처님인 자연의 가치, 이웃의 가치, 그대의 가치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함께 하게 한다. 동시에 모든 갈등과 대립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분리와 불평등의 벽을 넘어서는 탕탕무애의 길을 열어 준다.

무늬의 실상을 자세히 살피고 따져 보면 그 안에 인생의 영원을 실현하게 하는 법의 길인 멋진 비결이 있다. 붓다와 성자들이 내놓은 인생 화두에 대한 해답, 그대가 찾고 있는 참된 길이 무늬 안에 잘 펼쳐져 있다. 무늬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인생 화두에 대한 영원한 현재의 길이이며 영원한 현재의 안목이다.

4) 생명평화의 삶과 공동체 마을

(1) 생명평화의 삶

① 단순 소박한 삶과 생명평화 백대 서원

인드라망 세계관, 본래부처의 정신으로 볼 때 바람직한 삶을 한마디로 개념화하면 단순 소박한 삶이다. 무늬의 세계관으로 보면 단순 소박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 어울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 잘 어울리는 삶, 이웃과 잘 어울리는 삶, 상대와 잘 어울리는 삶이 단순 소박한 삶이요 아름답고 향기롭고 평화로운 삶인 것이다. 자연과 잘 어울리려면 당연히 주거 공간을 단순 소박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웃과 상대와 잘 어울림도 마찬가지다. 어울림의 눈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과 서울이란 도시를 생각해 보자. 과연 자신의 삶이 잘 어울리는 삶인가? 서울이 자연과 어울리는 도시인가? 서울엔 아예 자연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 서울에 이웃집과 잘 어울리는 집이 있는가? 건물들과 건물들을 보라. 서울엔 잘 어울리는 이웃집이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두뇌와 자본과 기술과 기계들을 다 동원해서 만든 것이 오늘의 서울인데 어울림을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하고 있다.

생각해 보자. 자연, 이웃, 상대와 잘 어울리는 삶을 사는데도 과연 자연생태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인간소외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존재의 법칙, 사랑의 법칙에 따라 자연과 어울리고 이웃과 어울리고 상대와 어울리는 삶을 살면 생명평화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만고의 진리이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 구하고 이루고 얻고 소유하려는 구하는 마음 없이 주체적으로 존재의 법칙과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면 그 생명이 안전하다. 주체적으로 존재의 질서와 조화로운 삶을 살면 그 삶이 평화롭다. 주체적으로 존재의 진리에 맞게 살면 그 삶이 자유롭다. 주체적으로 진리에 따라 알맞게 갖고 쓰며 사는 단순 소박한 삶을 살면 그 삶이 편안하고 아름답다. 자연과 어울리고 이웃과 어울리고 상대와 어울리는 단순 소박한 삶이야말로 인간이 살아야 할 가장 바람직한 삶인 것이다.

그 삶을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하기 위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헌신하고 또 헌신한다면 그대로 본래부처의 삶이요 도인의 삶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 법의 길, 다르마의 길을 따르는 삶, 자리에타의 길을 걸어가는 보살의 삶인 단순 소박한 삶을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하기 위해 생명평화 백대 서원 절명상을 만들었다.

생명평화 백대 서원은 인드라망 세계관의 정신으로 제시된 실천론인 보현행원을 일반화,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 가지로 확대한 것이다. 그리고 인드라망 세계관의 안목과 보현행원의 실천력을 구체화하고자 절하는 명상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지면의 부담 때문에 백대 서원 전문을 옮기지 못했다. 필요한 사람은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생명평화와 공동체 마을

① 왜 공동체인가

마을 공동체라고 하지 않고 굳이 공동체 마을이라고 한 이유부터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무늬가 말해 주고 있듯이 온 우주가 그물의 그물코처럼 유기적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존재 하나하나도 공동체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우주는 본래부터 공동체이다. 지금 여기 나도 본래부터 공동체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굳이 공동체 마을이라고 했다. 우주 자체, 존재 자체가 본래부터 이미 공동체라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주가 공동체이고 존재 자체가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하면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게 된다. 자연과 내가 본래 공동체인데 어떻게 인간 중심의 이기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는가. 너와 내가 본래 공동체인데 어떻게 자기 중심의 이기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는가. 우리가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이기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주와 존재가 본래부터 공동체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본래 공동체 세계요 존재이므로 중요한 것은 새롭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사고하고 생활하는 것이다. 그럼 본래 공동체인데 다시 공동체 운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래 공동체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본래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신념으로 공동체 삶을 살고 싶은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모여서 공동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공동체 마음을 낸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잘 살면 또다른 많은 사람들도 공동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② 왜 마을인가

인드라망 세계관과 정신으로 보면 마을은 인류 문명이 만들어 낸 기본 단위의 사회이며 바람직한 사회이다. 인류 문명사회의 원형이요 뿌리요 고향이다. 현대 문명의 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생명의 영원을 실현하는 대안도 공동체 마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을이야말로 생명평화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람직하게 실현할 수 있는 마당이다. 존재의 법칙과 질서 즉 인드라망 세계관과 그 정신에 맞는 공동체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 주민 스스로가 삶을 주체적이고 자립적이고 창조적으로 가꾸어갈 수 있는 곳, 어느 집도 고립되지 않고 이웃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 누구도 적이 되지 않고 동반자로 살아야 하는 곳,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곳이 마을이기 때문이다. 존재의 법칙과 존재의 질서인 인드라망 세계관이 사회로 형상화된 인류 문명의 원형이 마을이다.

21세기 도시 문명의 뿌리이기도 하고 우리 생명의 고향이기도 하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마을의 적절한 규모는 작은 초등학교와 작은 중학교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이다. 아이들이 부모와 이웃, 자연과 함께 살면서 공부도 하고 사회의 삶도 배워갈 수 있는 규모를 생각해 보면 현재 작은 면 단위 정도의 규모가 바람직할 것이다. 굳이 불교적으로 정리하면 사찰을 중심으로 한 사부대중 지역공동체 마을이라고 할 법하다.

우리가 마을 이야기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이고 자립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가야 그 삶이 의미도 있고 매력도 있다. 오늘날 도시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주체적으로, 자립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과연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내 의지대로, 내 꿈대로 짓고 살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

농촌 마을에서는 내가 주체적이고 자립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가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집도 내 뜻대로 지을 수 있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기타의 여러 가지 삶들도 대부분 주체적으로, 자립적으로, 창조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도시 공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농촌 마을에서는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개성 있는 삶을 창조적으로 가꾸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농촌 마을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수히 많다.

참고 : 생명평화의 꿈을 실현하는 공동체 마을 산내를 꿈꾸며

그동안 귀농자 중심으로 활동을 해 왔는데 개인과 단체가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웃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결국 지역사회의 불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산내라는 한 지역을 대안적 공동체 마을이 되도록 하려면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이고 자립적일 때만 가능하다.

주민들이 산내라는 우리 집을 만드는 데에는 그 주체가 정부도, 국회의원도, 지자체도, 시의원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인식과 자각이 있어야 한다. 주민이 주체적이고 자립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부어도 돈이 독이 될 위험성이 높다.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다주어도 별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 의식으로 주인답게 내가 또는 이웃과 함께 노력해서 만들겠다는 자립적 의지를 갖게 하는 일이 기본이 되지 않는 한 어떤 것을 가져와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제까지의 농업 정책의 결과가 오늘의 농촌임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의 꿈인 생명평화 공동체 마을을 실현하려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기본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주민이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내면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여 자발적으로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 개개인의 안목과 자질과 역량을 길러내야 한다. 제일 먼저 삶의 주체인 자기 자신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올바른 판단과 선택, 책임과 권리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향상의 공부가 필요하다. 다음은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산내 지역의 자연 생태, 역사 문화, 현재적 조건의 가치에 대해 잘 파악하고 알아야 우리 지역만의 개성을 살려내는 멋진 산내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산내 면민의 민의를 자유롭게 발산시키기도 하고, 우리 지역 산내에 대한 활발한 정보 교환도 펼쳐질 수 있는 대화 광장이 운영되어야 한다. 산내 지역의 모든 문제를 용해시켜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 대화 광장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을 전제로

공동체 마을 산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 공동체 마을 산내는 내가 살아가야 할 우리 집임.
- 산내에 살고 있는 주민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식구임.
- 우리 집을 잘 만들고 우리 식구들이 잘 살아가려면 이웃사촌과 품앗이의 삶을 살아야 함.
- 우리 집^우리 식구의 삶을 주민인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립적이며 창조적으로 함께 만들고 가꾸어야 함.
- 주민의 삶과 공동체 마을 산내가 안정적이고 희망적으로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들어야 함.

- ① 주민^지자체^귀농자^출향 인사^전문가의 지혜와 마음을 온전히 반영하고 합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 ② 우리 집^우리 식구의 삶의 문제를 투명하고 공평하고 활발하게 다루어 갈 대화 광장이 펼쳐져야 함.
- ③ 주민 개인의 안목과 자질과 역량을 가꾸기 위한 마음발 가는 일과 산내 지역에 대해 공부하는 마을 사랑방대학이 운영되어야 함.
- ④ 주민 전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운영해야 함.
- ⑤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마을재단을 설립해야 함.

● 개인^가족 단위에서 농심으로 농사짓고 사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식구 산내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산내마을 우리 집을 잘 만들고 가꾸어가는 일을 균형 있게 할 때 생명평화의 삶^생명평화의 마을이 실현될 수 있음.

2.대승불교의 수행

1) 대승불교의 기본 사유 방식

붓다, 그는 고통으로부터 해탈한 사람, 탐진치가 소멸되어 열반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는 어떻게 해탈했는가? 붓다, 그는 오랜 사유 끝에 붓다의 출현, 붓다의 깨달음 여부와 관계없이 본래부터 있는 보편적 진리를 발견했고 그 진리를 연기법이라고 했다. 내용을 보면 서로 의지하여 서로 존재하게 하고 서로를 빛나게 하는 사랑의 법칙이다. 붓다 그는 우주의 보편적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고 궁극의 열반에 도달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한다.

붓다의 가르침은 팔만사천 법문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 왜 그렇게 많은 것일까? 붓다의 가르침은 논리적 정합성을 갖는 단일한 체계의 이론서가 아니고 병에 따른 처방전이기 때문에 병의 수만큼이나 처방도 많다. 또는 그때그때 사람의 수준이나 문제에 따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 수만큼 많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팔만사천 법문을 종합하여 그 사유 방식의 본질적 핵심을 간단하게 함축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작자수(自作自受)'이다. 풀어 보면 "자신이 행위하는 대로 그 삶이 이루어진다. 자신이 만든 것은 자신이 받는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체적이고 자립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야 한다."이다. 부처, 부모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 줄 수 없다. 죽으나 사나, 좋으나 굶으나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살아야 한다. 아무리 길이 잘 닦여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주체적으로 가야만 그 길이 자신의 길이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실지견(如實知見, 연기법 즉 사랑의 법칙을 아는 것-지혜의 길) 여실지견행(如實知見行, 사랑의 법칙대로 실천하는 것-자비의 길)'이다. 풀어 보면 "현실적으로 직면한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리고 그 내용(사랑의 법칙)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삶이 편안하고

자유롭다.”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직면한 존재의 실상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길을 찾을 수 없다. 왜 그런가? 다른 데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바로 지금 여기 직면한 존재의 실상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왜 그런가? 그곳에 길이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좀 더 간추려 정리하면 하나는 주체적인 삶만이 그 삶이 참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 사실과 진실, 즉 직면한 실상에 근거하여 삶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언제나 그대가 직접[自歸依] 법의 길[法歸依]을 가면 그 길을 가는 만큼 해탈 열반이 바로 그대의 삶이 된다는 뜻이다.

2) 대승불교 수행의 기본 관점과 태도

대승불교 수행론의 기본 관점과 태도는 청매선사의 십무익송(十無益頌)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십무익송의 핵심은 보편적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방향과 길을 모르고 수행을 하면 아무리 용맹정진을 해도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마치 가야 할 목적지가 동쪽인데도 불구하고 서쪽을 향하여 즐기치게 달려가는 것처럼 된다는 뜻이다. 다음은 십무익송이다.

- 삶(마음)과 직결시켜 살피지 않으면 경전을 보아도 이익이 없다.
- 바른 법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고행을 해도 이익이 없다.
- 원인을 가볍게 여기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도를 탐구해도 이익이 없다.
- 마음(삶)이 진실하지 않으면 교묘하게 말을 잘해도 이익이 없다.
- 존재의 본질이 실제 없음(空)을 달관(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임)하지 않으면 좌선을 해도 이익이 없다.
- 아만심을 극복하지 않으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 스승이 될 덕이 없으면 대중을 모아도 이익이 없다.
- 뱃속에 교만이 꼭 차 있으면 유식해도 이익이 없다.
- 한평생 괴적으로 사는 사람은 대중과 함께 살아도 이익이 없다.
- 안으로 참다운 덕이 없으면 밖으로 점잖은 행동을 해도 이익이 없다.

우선 참선^구도^고행 등에 관계된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보편적 진리인 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신이 없으면 목숨 걸고 고행을 해도 이익이 없다. 존재의 본질이 실제 없음을 달관하지 않으면 밤낮으로 좌선을 해도 이익이 없다. 원인과 과정을 소홀히 하고 목적과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용맹심으로 도를 구해도 이익이 없다.” 등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다. 십무익송의 내용으로 보면 그냥 치열하게 참선을 한다고 해서, 고행을 한다고 해서, 도를 구한다고 해서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과 길, 즉 본래부처의 길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과 길이 없이 맹목적으로 수행을 하면 당사자의 의도나 바람과는 정반대로 소유심, 소구심, 소득심, 속효심이라는 고질병 또는 기복주의,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농후하다. 명심해야 할 일이다.

3) 대승불교 사유로 본 본래부처와 대승불교 수행론

오늘의 한국불교 현실은 비연기적 사고인 실체론적 불교관과 이분법적 실천론인 비중도적 수행론에 빠져 매우 혼란스럽다. 초기불교다, 대승불교다, 교학불교다, 참선불교다 하고 비연기적 사고로 서로를 분리시켜 선후, 경중, 우열을 따지는 왜곡된 불교관으로 인해 참불교, 정법불교가 무엇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이론(얕)과 실천, 수행과 일상의 삶, 수행과 깨달음, 자리행과 이타행, 개인 수행과 현실 참여, 자기완성과 사회완성 등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키는 비중도적인 양극단의 수행론으로 인해 수행자들의 회의와 갈등과

방향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교학불교와 참선불교, 암과 실천, 수행과 일상의 삶, 수행과 깨달음, 자리행과 이타행, 개인 수행과 현실 참여, 자기완성과 사회완성이 연기 중도적으로 통일되는 길을 열어 가고자 본래부처와 대승불교 수행론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우선 불교가 어떤 가르침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불교란 고통에 찬 삶을 살아야 하는 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 생명은 어떤 존재인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인류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화두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가르침이다. 그 해답을 초기에는 유아독존, 화엄에서는 본래부처, 선가에선 본래면목이라고 했다. 잘 알다시피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본래부처론이다. 따라서 본래부처라는 개념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겠다.

본래부처에 담긴 뜻을 간추려 보면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는 천하에 제일 귀한 존재임을 뜻한다. 온 우주 그 어디, 그 무엇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는 있지 않다. 천하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하거나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의 존재이다.

둘째는 천하에 제일 주체적인 존재임을 뜻한다. 그 누구, 그 무엇도 내 삶을 대신 살아 줄 수 없다. 죽으나 사나 자기 삶은 자기 스스로 살아야 하는 매우 주체적인 존재이다.

셋째는 천하에 제일 완성된 존재임을 뜻한다. 그 누구, 그 무엇도 자기 필요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데, 생명의 존재인 나는 자유자재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단히 완성된 존재이다.

넷째는 천하에 제일 창조적인 존재임을 뜻한다. 자신의 행위대로 그 삶이 창조된다. 스스로 중생의 삶을 살면 중생의 삶이 창조되고 부처의 삶을 살면 부처의 삶을 이루는 매우 창조적인 존재이다.

다섯째는 천하에 제일 고마운 존재임을 뜻한다. 연꽃은 연못에 의지하여 생명을 갖고, 연못은 연꽃에 의지하여 생명을 갖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의지처요, 뿌리요 모체이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낱알 존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낳고 길러 주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이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생명 자체는 천하에 제일 귀중하고 거룩하고 신비한 존재이다. 세상에 생명을 낳고 살게 하는 일보다 더 거룩한 일, 신비한 일, 위대한 일, 중요한 일, 불가사의한 일은 없다. 순간순간 우주의 낱알 존재들이 사랑의 법칙에 따라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낳고 살게 하는 신비한 기적,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모두는 존재 자체가 신비의 존재, 불가사의의 존재, 기적의 존재이며 동시에 매 순간 신비 속에, 기적 속에, 불가사의 속에 살고 있다. 또는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신비, 기적, 불가사의를 일으키는 주체로 살고 있는 것이다.

매일매일 만나는 존재 하나하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대와 나의 생명을 낳고 길러 주는 너무나 귀하고 고맙고 대단한 존재들인데 어찌 지극히 모시고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견문각지에 만나는 존재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본래부처이므로 지극히 잘 모시고 섬겨야 할 일이다.

바로 대자대비의 보살행이다. 당연하고 좋은 일이다. 너무나 본래부처다운 행주좌와라고 하겠다. 스스로 천하에 거룩하기 그지없는 원만구족한 본래부처인데 어찌 무한한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스스로 그 무엇 하나 부러울 것도 부족할 것도 없는 원만구족한 본래부처이므로 행주좌와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할 일이다. 바로 대무심행이다. 당연하고 멋진 일이다. 너무나 본래부처다운 행주좌와라고 하겠다.

본래부처론으로 보면 수행해서 다시 부처 되려고 하는 이분법적인 어리석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본래부처인데 다시 부처 되려는 어리석은 짓을 해야 할 까닭이 없다. 질집에는 자신 또는 존재 자체가 부처임을 모르고 특별히 따로 부처를 찾아 천하를 헤매고 다니는 무지한 중생을 비유해서 “소를 타고 있으면서 다시 소를 찾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본래부처인데 어디에 가서 다시 부처를 찾을 것이며, 본래부처인데 수행한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다시 부처가 이루어지겠는가? 한갓 부질없는 헛수고요 전도몽상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본래부처임을 알고 믿고 지금 당장 부처로 사는 것이다.

그럼 본래부처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초기에는 삼계개고 아담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라고 했고 화엄불교에서는 동체대비(同體大悲)라고 했고, 선가에서는 행역선 좌역선(行亦禪 坐亦禪) 또는 대무심(大無心)이라고 했다. 풀어 보면 “뭇 생명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 “뭇 생명들을 내 생명처럼 모시고 섬기는 삶에 나의 전 존재를 바치겠다.” “움직일 때에도 대자비의 본래부처로 움직이고, 앉을 때에도 대자비의 본래부처로 앉는 대무심행의 삶을 사는 데 전심전력하겠다.”이다. 그 가운데에서 본래부처행인 보현심대행원을 간단히 간추려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보현행원을 보다 더 역동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원래 사용해 온 부처, 여래라는 인격적 개념을 여기에서는 인드라마 존재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재구성해 본다.

- 첫째, 모든 인드라마 존재께 예경 올립니다.
- 둘째, 모든 인드라마 존재를 찬탄합니다.
- 셋째, 모든 인드라마 존재께 공양 올립니다.
- 넷째, 모든 인드라마 존재에 대한 무례의 업장을 참회합니다.
- 다섯째, 모든 인드라마 존재의 공덕을 함께 기뻐합니다.
- 여섯째, 모든 인드라마 법의 바퀴 굴리기를 간청합니다.
- 일곱째, 모든 인드라마 존재들이 온전히 머물기를 청합니다.
- 여덟째, 모든 인드라마 존재를 따라 배웁니다.
- 아홉째, 모든 인드라마 존재에 수순합니다.
- 열 번째, 모든 인드라마 존재에 회향합니다.

조금 더 첨언한다면 본래부처인데 괜히 다시 부처를 구하고 찾고 이루려는 헛고생하지 말고 지금 당장 본래부처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온 존재를 다 바쳐 보현행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본래부처로 사는 참보살행이요 참정진이다. 그야말로 행역선 좌역선(行亦禪坐亦禪)이다. 본래부처이니 지금 바로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본래부처답게 살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승불교 수행론의 진면목이 이러함을 분명하게 직시할 일이다.

4) 하나의 길로 만나는

대승불교(본래부처)와 초기불교 수행론(팔정도)

대승불교 수행론의 기본은 본래부처와 동체대비행이다. 대승불교 수행자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길의 기본은 바로 본래부처와 보현행이다. 본래부처로 사는 것을 화엄에서는 보현행이라 했고 선가에서는 대무심행이라 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초기불교 수행론의 기본은 사성제 팔정도이다. 내용을 단순화시켜 보면 직면한 일상의 삶을 법의 정신에 맞게 마음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그 자체가 해탈이요 열반의 삶이라는

가르침이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교학불교와 참선불교, 수행과 일상의 삶 등이 하나의 불교 수행으로 통일되는 길을 열어가는 차원에서 본래부처와 팔정도를 접목시켜 보려고 한다.

본래부처와 동체대비행에 대해서는 대승불교 수행론에서 이미 설명했으므로 여기에서는 팔정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다. 팔정도가 특별하고 여러 가지 어렵게 보이지만 내용을 사실적으로 간추려보면 오히려 매우 평범하고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팔정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자신의 삼업 활동을 법과 교법에 맞게 하라는 것이다. 즉 지금 당장 자신이 법에 맞게 마음을 쓰고 법에 맞게 말을 하고 법에 맞게 행동을 하고 사는 것이 팔정도요 초기불교의 기본 수행이라는 의미이다. 같은 맥락에서 초기불교 시대에 사용해진 법이라는 논리적 개념을 대승불교 시대에 사용해 온 본래부처라는 인격적 개념으로 바꾸어 본래부처와 팔정도 즉 본래부처와 삼업 활동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가 정견(正見)이다. 지금 직면한 존재의 실상, 법의 실상인 본래부처를 사실대로 보고 이해하는 견해가 바로 정견이다. 정견이 그대로 부처의 견해이다. 대부분 정견을 거친 다음 더욱 향상 발전해서 부처의 견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견 자체가 부처의 견해이다. 그 밖에 부처의 견해가 따로 있지 않다. 만일 정견 말고 부처의 견해가 따로 있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전도몽상의 견해일 뿐이다. 수행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지금 여기 현장의 일상적 삶에서 매 순간 직면한 존재의 실상인 본래부처를 사실대로 보고 이해하는 견해를 바르게 알고 다듬고 적용시켜 실천하는 것이 정견 수행이요 깨달음의 수행인 것이다.

둘째는 정사유(正思惟)이다. 정견의 경우처럼 본래부처를 사실대로 거듭 사유 음미하는 것이 바로 정사유요, 그대로 부처의 사유이다.

셋째는 정어(正語)이다. 마찬가지로 본래부처답게 말하는 것, 즉 여어(如語) 실어(實語) 불이어(不異語) 불광어자(不誑語者)로 사는 것이 바로 정어요, 그대로 부처의 정어이다.

넷째는 정업(正業)이다. 본래부처답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정업이요, 그대로 부처의 행위이다.

다섯째는 정명(正命)이다. 본래부처답게 의식주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정명이요, 그대로 부처의 생활이다. 여섯째는 정정진(正精進)이다. 본래부처답게 살려고 즐기게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정진이요, 그대로 부처의 정정진이다.

일곱째는 정념(正念)이다. 본래부처임을 항상 잊지 않고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바로 정념이요, 그대로 부처의 정념이다.

여덟째는 정정(正定)이다. 본래부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함이 바로 정정이요, 그대로 부처의 정정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래부처의 삶인 팔정도를 더 단순화시키면 한마디로 칠불통계(七佛通偈)의 내용이 전부라고 해도 괜찮다고 본다. “죽을 힘을 다해 나쁜 짓 하지 않고, 지극정성을 다해 좋은 일을 실천한다. 그리고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그 마음을 오염되지 않고 청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불교 수행론이 천 가지 만 가지나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불교 수행론도 칠불통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칠불통계 내용대로 일상의 삶을 가꾸어 간다면 그 삶이 본래부처의 삶이다. 그 삶이 행주좌와에 온전히 젖어들어 무르익을 경우 그것을 완성된 깨달음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거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본래부처가 있어야 할 곳과 때는 언제, 어디일까? 바로 지금 여기 현장이다. 본래부처가 행동하고 살아야 할 곳과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요,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다. 따라서 현장이 도량이요, 만나는 사람사람이 본래부처이므로 매 순간, 매 상황 만나는 그 사람을 본래부처로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 참된 수행이요 본래부처다운 행동이다. 팔정도의 길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하면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교학불교와 참선불교, 수행과 일상의 삶이 저절로 하나의 길로 통일된다.

서로 분리시키고 서로 다르다고 우열을 다투어야 할 까닭이 어디에도 있지 않다. 중생의 병을 치유하는 데 적절한 처방이라면 그 이름이 초기불교면 어떻고 대승불교면 어떤가. 불교면 어떻고 기독교면 어떤가? 참선불교라고 특별 대접하고 교학불교라고 푸대접하는 것이 과연 불교적이겠는가. 수행 따로, 일상의 삶 따로라면 그것이 선방에 있든 법당에 있든, 산중에 있든 도심에 있든 참된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직하게 물어보고 겸손하게 돌아볼 일이다.

3. 맺음글

생명평화 운동 진영에서 사용하는 언어, 대승불교 수행론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서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우주의 존재 법칙인 보편적 진리 즉 사랑의 법칙에 따라 살면 고통으로부터 해탈한다. 또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

사랑의 법칙에 따라 가정과 사회를 가꾸고 운영하면 화목한 가정,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굳이 결론짓는다면 대승불교 수행론을 현대화, 대중화, 일상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생명평화 운동이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불교가 자신의 존재 의미를 빛나게 하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대승불교운동으로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생명평화 운동을 펼쳐야 마땅하다고 본다. ■

도법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사단법인 한생명 이사장. 1965 금산사 출가(은사 월주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실상사 주지, 실상사귀농학교 교장,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지리산 생명연대 상임대표 등 역임. 저서로 《화엄의길 생명의길》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 등 다수.

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953, 불교평론, 열린논단,